

항공·정유 '먹구름' 자동차·조선 '안도'

■ 고유가·고환율 ... 산업계 희비

아시아나항공, 긴축경영·노선감축 등 자구노력

현대·기아, 환율 10원 오르면 매출 2천억 늘어

원·달러 환율이 8일 1천40원대로 뛰어오르며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감에 따라 항공·여행·정유·화학·식품 등 일부 업종의 먹구름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특히 항공·정유·화학업체들의 경우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선 등 고평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환율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배가되는 실정이다.

다만 정유·화학업체들로서는 수출비율을 꾸준히 높여가는 방식으로 환율급등에 따른 최소한의 '비상구'를 확보해 놓았다는 점에서 그나마 가슴을 쓸어내리는 상황이다.

항공업계는 고유가에 이은 환율급등으로 초상집

분위기다. 항공업체들로서는 고유가·고환율의 부담을 덜어내기 위한 유일한 '카드'가 유류할증료 또는 항공료 인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류할증료의 경우 현재 최고 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데다, 항공료의 경우 소비자의 반발은 물론 글로벌 경쟁에서 고객을 놓칠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인상 자체가 자유롭지 못하다.

연초에 환율을 달러당 940원대로 잡았던 대한항공은 1·4분기에 환해지가 제대로 안돼 3천255억원의 손실을 기록했고, 2·4분기에도 '고유가·고환율'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실적 전망이 좋지 않다.

아시아나항공은 연초 달러당 930원대로 환율을 잡았으며 1천원대를 넘어선 이후 긴축경영의 고배

를 더욱 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최악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내선 적자노선 운휴 뿐 아니라 수익성이 떨어지는 일부 국제선 노선의 운항횟수를 줄이는 방안까지 검토할 정도다.

원유를 달러로 도입하는 정유업계의 경우 원·달러 환율상승은 바로 환차손으로 이어진다. 원유도입시 원유 정제, 판매 시점에 결제할 수 있도록 특정 은행에 대납하고 60일이나 90일 후에 결제하는 유전스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또 시설투자 등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외화부채를 일정 부분 가지고 있는 만큼, 환율이 상승하면 이자비용이 확대되고 외화부채 평가액이 커지는 결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GS칼텍스는 지난달말 대비 환율변화만으로 원유 도입비용이 1 당 17원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 GS칼텍스는 환관리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주 단위로 환 전략을 세우는 본부 위원회도 열고 있다.

LG화학도 환율이 급등하면 해외 원재료 구매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 이 때문에 LG화학은 구매 결제수단을 다변화하고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핵

심 원재료를 전략적으로 구매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시행 중이다.

식품업계 역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밀가루와 옥수수 등 식품 원재료 국제가격이 계속 오르는 어려움 속에서의 또다른 악재라고 할 수 있다.

CJ제일제당은 올해 경영계획 수립시 기준 원·달러 환율을 935원으로 잡았는데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회사 전반의 원재료 수입비용이 연간 30억 원씩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1천40원을 넘으면 연간 손실액은 315억원에 달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반해 전자·자동차·철강·조선 등은 환율급등으로 오히려 이익을 보거나 한발 비켜있는 대표 업종이라고 할 수 있다.

삼성전자가 1·4분기 '깜짝 실적'을 낸 데에는 환율상승 영향도 크게 자리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1·4분기에만 가파른 환율상승에 힘입어 3천억원 이상의 영업이익 증대효과를 봤다.

현대·기아차의 입장에서도 환율상승은 수적으로 연결된다. 원·달러 환율이 10원 상승할 때마다 매출액이 2천억원 가량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300여 공공기관 구조조정 '태풍권'

통폐합 등 내달까지 방안 제시

305개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이 실시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305개 공공기관 가운데 민영화 대상이 아닌 나머지 공공기관들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민영화도 광의의 구조조정이라는 점에서 모든 공공기관들이 구조조정 태풍권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공공기관 구조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도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설립목표를 이미 달성했는지 ▲설립목표에 부합되지 않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별도의 기관으로 남아있을 필요가 있는지 ▲민간에 다양한 사업을 맡겨 줄 것을 검토해 6월말까지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공공기관들이 민영화, 통폐합, 소멸, 기능축소 등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와 감사원 감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조조정 방안의 범위와 정도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따라서 거의 모든 공공기관들은 민영화 또는 구조조정 검토대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4월 소비심리 다소 개선

증시 호전 영향 소비자 기대지수 100.6

인플레이션과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증시 호전의 영향으로 향후 경기나 생활형편, 소비지출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8일 발표한 4월 소비자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기대지수는 전월에 비해 0.7포인트 오른 100.4로 집계돼 기준치 100을 넘어섰다. 소비자기대지수는 지난해 3월 97.8에서 4월 100.1로 상승한 이후 올해 2월(103.1)까지 기준치를 웃돌다 3월 99.7로 1년 만에 기준치를 밑돌았다.

세부 항목별로는 경기에 대한 기대지수가 3월 92.1에서 4월 93.8로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기준치 100을 밑돌아 향후 6개월 후의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소비자가 더 많았다.

반면 생활형편에 대한 기대지수는 3월 99.2에서 4월 100.1로 상승해 기준치를 넘어섰고, 소비지출에 대한 기대지수는 한달 사이 107.7에서 107.3으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기준치를 웃돌았다. /연합뉴스

현대전화 단말기 할부 이용자

완납땀 보증보험료 돌려 받는다

앞으로 현대전화 단말기 할부 이용자가 중도에 비용을 완납한 경우 잔여기간의 할부보험료를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TF 등 3개 이동통신사와 협력, 이동전화 단말기 할부 이용자가 중도에 비용을 완납한 경우 잔여기간의 할부보험료를 이용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온라인 환급시스템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단말기 할부보증보험은 단말기 할부 구매시 할부금 미납부에 대한 대책으로 이동통신사와 보증보험사간에 체결한 보험계약이며, 보증보험료를 사업자와 이용자가 공동으로 부담해 왔다.

그동안 이용자가 단말기 할부금을 할부기간 이내에 중도 완납시 보증보험사는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사업자에게 환급하고 있으나 사업자는 이를 이용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99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환급보험료는 총 45만건에 34억원이나 됐다. /연합뉴스

국세청 '세금 절약 가이드' 발간

임대준인 시가 10억원의 상가 건물을 각각 상속받은 A씨와 B씨. 하지만 A씨는 상속세로 1천만원을 납부했고 B씨는 7천만원을 냈다. A씨는 어떻게 상속세를 6천만원이나 절세할 수 있었을까.

국세청이 8일 개정된 세법을 반영해 발간한 '세금 절약 가이드 I·II'와 '부동산과 세금'을 보면 해답이 있다.

'세금절약가이드 I·II'와 '부동산과 세금'은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일반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세목을 중심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이들 세금 책자에 따르면 A씨가 상속받은 건물은 보증금 4억원에 월세 200만원이었고 B씨가 상속받은 건물은 보증금 1억원에 월세 500만원으로 피상속인(A씨와 B씨)의 부채인 보증금 차이 때문에 A씨가 상속세를 훨씬 적게 낼 수 있었다.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채무 등과 상속공제·감정평가수수료를 뺀 것이다. 책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전자책(e-book)으로 제공되고 시중 서점에서도 판매된다. /연합뉴스

■ 환율 1,040원대 급등 원인과 전망

고유가가 달러 가뭄 초래 6월 전후 하락세 예상도

8일 원·달러 환율이 7거래일간 50원 이상 폭등하면서 2년 반만에 1,040원대로 급등했다.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국제 유가의 고공행진과 미국발 신용경색에 대한 우려 등으로 환율이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외환당국까지 환율 상승을 부추기면서 1,060원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유가와 함께 차츰 하향 안정될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 환율 1,040원대 급등 =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23.50원 급등한 1,049.60원대로 마감했다.

환율이 7거래일간 53.60원 급등하면서 2005년 11월25일 이후 2년 반만에 1,040원대로 올라섰다.

최근 환율 급등의 중심에는 유가가 놓여 있다.

유가 급등으로 결제 금액이 늘어난 정유사들이 달러화 매수를 급격히 늘리면서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부족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여기에 새 정부가 경상수지 개선

을 위해 환율 상승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점도 달러화 매수세 확산에 일조하고 있다.

◇ 유가 동향 주목 - 하향 안정 전망도 =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고유가에 따른 달러화 수요 확대와 당국의 정책 의지 등의 영향으로 환율이 추가 상승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부에서는 2005년 10월24일 장중 기록한 1,060원 선까지 고점을 높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삼성전선물 전승지 연구원은 "환율이 최근 급등했지만 초기에는 오히려 무역수지가 악화되는 J커버 효과 등을 감안하면 수급 개선으로 연결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환율이 반짝 랠리를 보인 2005년 고점인 1,060원까지는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환율이 역외세력의 투기적 매수세 등의 영향으로 단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6월을 전후해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유가 거침없는 상승 ... 두바이유 115달러 육박

국제유가의 거침없는 상승세가 이어지며 국내 주도종 원유의 기준이 되는 중동산 두바이유의 가격이 배럴당 115달러선에 바짝 다가섰다.

8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7일 거래된 두바이유 현물은 전날보다 배럴당 1.71달러 오른 114.96달러선에 가격이 형성되며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뉴욕 상업거래소(NYMEX)의 6월 인

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장중 배럴당 123.80달러까지 뛰며 역시 사상 최고기록을 세운 뒤 전날보다 1.69달러 상승한 배럴당 123.53달러에 마감했다.

이날 국제석유시장에서는 1·4분기 노동생산성 지수가 전년보다 2.2% 증가했다는 미국 노동부의 발표가 미국 경기의 회복과 석유수요 증가전망을 낚으며 유가상승을 부추겼다. /연합뉴스



'앙드레킴 도자기 세트'

8일 서울 신사동 앙드레킴 아틀리에에서 앙드레킴(가운데)과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델들이 한국도자기가 출시한 '앙드레킴 도자기 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韓銀총재 "올 성장률 4.5% 이하"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8일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한은이 전망한 연 4.7%보다 낮은 4.5% 이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도 지난 달에는 "연말쯤 안정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이번에는 "향후 전망이 불확실하며 상당 기간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5.00%로 동결한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경기는 성장세가 상당히 둔화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유, 농산물 가격 등 원자재 가격상승, 미국의 경기부진 등이 점차 국내 경제에 파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 "현재 상황은 연 4.5%보다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4.5% 또는 그 이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올해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7%, 작년 동기 대비 5.7%를 기록한 것에 대해서는 "한 분기에만 집착하면 경기상승이나 하강의 움직임을 지나치게 축소해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물가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제 원유가격이 계속 상승해왔고 원·달러 환율도 계속 오르고 있어 앞으로 상당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 상한선을 웃도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원유가격과 환율이 안정된다면 연말쯤 가서는 물가 상승률이 내려오지 않을까 예측한다"면서 "그러나 요즘 국제 원유시장과 원자재 가격 움직임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이 불확실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연합뉴스

"美 신용위기 충격

이제부터가 시작"

조지 소로스 경고

미국 역만장자 투자가 조지 소로스는 7일 신용위기의 진짜 충격이 "이제 막 시작됐다"고 말했다.

소로스는 이날 워싱턴의 외교위원회(CFR) 회동 질의응답에서 "금융위기의 심각한 국면이 아직도 벌어졌다"면서 "미국에서 막 충격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위기 가시화가 "확실한 시간차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로스는 미국의 집값이 급등했던 것처럼 가격하락도 급격히 이뤄질 것이라며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포어를 놓쳐(주택지당권 포기)가 증가하는 것이 "갓 시작인데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계약직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09	062-230-6202
시흥금속	자동차 부품 납품, 품질관리겸직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5/10	062-956-0223
포토양주	(내근직) 활영보조 상담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10	062-222-0945
(주)미보	대표이사 수행(운전) 비서	고졸/경력1년	1800~2000	05/15	062-946-7000
웨디안웨딩	2008년 웨딩플래너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5/15	062-224-5655
성진금융	해외영업팀 사원(영어)	초대졸/경력5년	회사내규	05/16	062-955-3727
(주)우리	전기안전관리자 경력직	고졸/경력2년	2600~2800	05/16	062-361-7106
(주)협동엔터프라이즈	대형할인매장내 판매 담당원	고졸/경력무관	2200~2400	05/17	062-574-2539
(주)전통	사무보조 직원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5/17	062-261-6611
후지제록스(호남주)	후지제록스(호남주) 영업인턴사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19	062-365-3500
간지나라	스타일리스(코디네이터,메디)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20	010-9945-1244
윤	[전대후임]헤어 스타일리스트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20	062-261-7999
(주)광성조선	법인회계결산/구매재지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20	061-277-7711
(주)세기엔지니어링	토목계측(연약지반,터널,교량) 경력직	초대졸/경력2년	회사내규	05/21	062-529-8689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공정위, NHN 독과점지위 남용 제재

'자회사 부당지원' 과태료 부과

국내 최대의 인터넷 포털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이 독과점 지위를 남용하고 자회사를 부당지원하는 등 부당행위를 하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야후코리아도 콘텐츠 제공업체와의 거래관계에서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제재를 받았고 SK커뮤니케이션즈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여러 업체들도 부당행

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전의회의를 열어 인터넷 포털 업체들의 이런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NHN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자회사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2억2천7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연합뉴스